

# “의천사상, 다종교사회 화합 열쇠”

### 보조사상 11일 '대각국사의 불교사상...' 학술회의

‘의천의 천태사상 수용의 두 단계’를 발표한 이병욱박사(고려대 철학과 강사)는 의천스님이 고려말 불교계를 개혁하기 위해 천태사상을 받아들였다고 전제하고 “처음에는 정관(證觀, 738~839)의 천태사상을 수용했지만 나중에는 원효의 화엄사상으로 천태사상을 재해석하고 교(敎)와 관(觀)을 병행했다”며 의천스님이 천태사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을 시대별로 분석했다.

이러한 입장 변화는 의천스님이 중립의 (일각경소)를 논하면서도 종말의 의도와 상관없이 원효의 화엄사상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당시 고려의 다양한 불교 종파와 유가·도가를 통합하는 것으로 해석한 데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이박사는 “이것은 의천스님이 당대 사상을 회통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천태사상은 여러 종교가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더욱 필요하다”고 말해 오늘날 한국사회의 특징인 종교다원주의 사회에서 의

천스님의 화평의 도리는 더욱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화평사상을 천명한 의천스님이 귀족불교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은 그의 화엄적 실천관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

티호코프 블라디미르교수(경희대)는 ‘의천의 한국불교사 의식’에서 의천스님이 <속장경>을 간행한 것의 통불교적인 사상이 발로이지만 원효의 초소동등론(福深同等論)

의 주제를 다루어온 보조사상연구원(원장 현호스님)이 의천스님의 천태사상과 <속장경> 간행 등이 지닌 불교사상적 의미를 폭넓게 조명하기 위해 ‘대각국사 의천의 불교사상과 역사적 위치’를 주제로 제10차 학술회의를 11일 법륜사에서 개최한다. 학술회의에 앞서 발표 논문을 요약 소개한다.

## 고려불교의 유·도가 통합 중추역할 속장경 간행 통불교사상 조명

과 같은 대중불교의 이론적 기반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의천의 화엄사상’을 발표한 계현스님(동국대 불교학과)도 ‘대각국사문집’에서 의천스님이 화엄학적 용어들을 단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화엄학을 완전히 수용했다고 말할 수 없다”며 “이것은 화엄사상이기 보다는 ‘화엄적 입장’이라는 표현이 적합하다”고 말해

현대 불교학자들이 의천의 삼중관법(三重觀法) 등의 학문적 이론만 가지고 문헌에도 없는 의천의 실천 방안을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의천의 속장경’을 발표한 박상국실장(문화재연구소)은 “의천은 20년동안 동아시아의 장소(藏流)를 수집해 중국의 (개원석교)과 비견되는 장소 목록집인 <신편제종교



선암사에 봉안되어 있는 의천스님 영정.

장총록)을 함질(函秩)로 엮어 간행했지만, 현존본에서 함차 표시가 없고 관식이 일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치·사회적 난국으로 인해 <속장경>의 간행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종욱 기자



9월30일 유식학의 거장 오형근교수의 '정년퇴임 및 출판기념 강연회'가 있었다. 이날 오교수는 유식학을 주제로 퇴임 강연을 가졌다.

## “색법설” 연구에 여력 쏟을터”

### 유식학 권위자 오형근교수 정년퇴임

지난 25년간 대승경전의 유식사상(唯心思想), 대승보살도, 불교적 물질론 등의 연구에 몰두해온 유식학의 권위자 오형근교수(65)가 9월30일 동국대 개교90주년기념문화관에서 ‘정년퇴임 및 출판기념 강연회’를 가졌다.

강연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 대한불교조계종원 서동각이사장, 동국대학교 송석구총장과 동료교수, 제자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퇴임강연에서 오교수는 “유식학의 연구에 여력을 쏟을터”라고 말했다.

오교수는 ‘세천의 오위백법’(74년) ‘세천의 오위관에 대한 소고’(76년) <유식사상연구>(불교사상사, 83년) <불교와 자연과학>(집문당, 92년) <불교의 물질과 시간론>(유가사상사, 94년) 등 70여편의 논문과 8권의 연구서를 발간했다. 오교수의 방대한 연구성과는 그동안 연구자가 전혀없어 황무지에 비유되던 유식사상 연구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반 정년퇴임식에서는 오교수가 90년 “한국불교 기원논문집 ‘유식사상과...’”에 게재될

“한국불교 기원논문집 ‘유식사상과...’”에 게재될

교를 도입해 토착화시킨 종교로 그 법맥은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으나 실제의 수행은 소승적인 요소가 적지 않다”며 “이러한 소승적 요소를 발본하고 명실공히 대승불교를 수행하는 불교가 되려면 보살사상을 철저히 연구해 이론을 제공하게 급선무”라고 지적하며 유식학을 연구하는 후학들에게 경구(警句)를 아끼지 않았다.

故김동화박사의 학맥을 계승한 오교수는 1967년 동국대에 ‘아뢰야식 연구’로 석사학위를 받으면서 지난 25년동안 유식사상이 한국사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꽃피었는지 를 체계적으로 천착해 ‘유식학

의 오위백법’(74년) ‘세천의 오위관에 대한 소고’(76년) <유식사상연구>(불교사상사, 83년) <불교와 자연과학>(집문당, 92년) <불교의 물질과 시간론>(유가사상사, 94년) 등 70여편의 논문과 8권의 연구서를 발간했다. 오교수의 방대한 연구성과는 그동안 연구자가 전혀없어 황무지에 비유되던 유식사상 연구에 새로운 장을 개척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반 정년퇴임식에서는 오교수가 90년 “한국불교 기원논문집 ‘유식사상과...’”에 게재될

## 국제원효학회 번역자 15명 선정

국제원효학회(공동회장 송석구)가 현존하는 원효저술 번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번역자를 15명 선정했다.

번역자는 <대승기신론소기회목>을 영역하는 박성배 석좌교수(동국대)를 비롯해 로버트 버스웰(UCLA), <금강삼매론> 찰스 톨러(도요카쿠엔), <이장의> 조성택(뉴욕주립대), <달해경종요> 김용표(동국대), <대해도경종요> 존 블랙이(인디애나주립대,

등 국내·외 불교학자 15명.

국제원효학회는 한국 불교학자 중 번역자 3명을 추가로 선정해 원효저술 21권중 각각 1권씩 3년간 3년-번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김용표교수(국제원효학회 한국지부 간사)는 “12월중 해인사에서 국제원효학회 ‘위크숍’을 마련해 원효저술 번역에 따른 ‘용어’ ‘교리’ 등에 대해 토론을 거쳐 세부적인 ‘번역 통일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육바라밀 실천은 환경보존 운동”

### 美 그로스교수 '불교환경윤리' 발표

최근 위스콘신대 비교종교학 리타 그로스교수가 <미국종교학회지>(The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Religion, 통권62호)에 사성제와 육바라밀 등 불교사상이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문제를 푸는 열쇠라고 강조한 ‘불교환경윤리’를 발표해 화제이다.

그로스교수는 “사성제의 ‘고성제’ ‘집성제’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고, 이 문제는 육바라밀의 보시(布施) 지계(持戒)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불교는 인간의 삶이 ‘삼독’(三毒)에 둘러싸여 있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불성(佛性) 역시 인간에게 내재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고성제와 집성제를 바로 볼 때 ‘삼독’에서 벗어나 수 있으며, 보시와 지계의 실천적 수행이야말로 삼독을 막을 수 있고 자연적으로 환경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고성제와 집성제란 향락적 욕망을 구하고 개체의 생존에 탐닉하는 망집, 또 보시와 지계란 자비심으로 선을 실천하고 모든 중생을 살찌게 하는 행위.

그러나 그로스교수는 “현대인이 불교를 개인적 해탈만을 꾀하는 종교로 생각하고 중도(中道) 등 불교의 주요 교리들을 긍정과 부정의

불분명한 사상으로만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불교의 그릇된 이해는 결국 사성제, 육바라밀 등의 불교환경윤리가 사회 속에서 실현되는 것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말해 깨달음이 사회로 적극 환원될 때 ‘반사회적’이라는 불교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고 불교환경윤리를 세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달라이 라마(티벳), 아웅산 수지 여사(버마), 술락 시바락스(태국) 등의 아시아 불교 지도자들이 불교적 가치관을 사회와 정치의 안정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은 좋은 예’라며, 이것은 불교환경윤리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제소식

국제여성불자연합(Sakyadhita)이 ‘불교에서 여성’을 주제로 제5차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서 12월 29일~1998년1월4일 개최되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불교단체에서의 여성의 지위 △불법(佛法)-비교문화적 접근 △경쟁과 사회참여 △불교교육법 등이 논의된다.

국제여성불자연합은 세계 여성불자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1987년 인도에서 설립됐다.

스리랑카 스님 1백여명이 지난달 30일 수도 콜롬보에서 정부의 헌법개정안 반대 시위를 전개했다.

이 행진은 스리랑카 정부가 최근 티밀 등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의 권리를 강화시킬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발생했다.

스리랑카 승단은 이번 시위를 통해 “이것은 스리랑카의 분리를 조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공식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 부처님의 미소

호주 시드니대학에서 제공하는 ‘부처님의 미소’는 아유타, 스코타이,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 유적지에서 발굴된 불상 30여개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제공하고 있어, 이곳을 방문하면 동남아시아의 다양한 불상을 비교 감상할 수 있다.

아유타 유적과 태국 치앙산에서 발굴된 불상의 경우, 치앙산 불상이 뾰족한 머리 모양을 한 반면 아유타 불상의 두상(頭上)은 완만한 곡선 형태이며 흉상(凶相)과 비교해 비대칭적이다. 두 불상의 결구부에서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스코타이의 청동불상은 이 민족의 놀라운 금속 주조 기술을 엿보게 하며, 미얀마의 불상은 동자(童子)의 미소를 간직하고 있다. 5세기에 제작된 미얀마의 목제 열반상도 열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태국의 치앙마이 박물관이 대불(大佛) 발굴 보고서를 제공하는데 이 보고서는 1996년 치앙마이 근교에서 5백여년전 불상을 발굴했던 기록. 또 미얀마에서 청동불상을 제작하는 전통적인 방법도 소개한다. <http://felix.anitquity.ars.su.edu/>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르스님 뱀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르스님. 일타르스님의 뱀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르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I.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II.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III. 배려를 살자 / IV.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V.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VI. 회두 드는 법 / VII. 미하반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르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을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신국판 / 3,500원

**祈禱(기도)** 일타르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성취 영험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르스님 주변의 문화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사상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경>에 대한 일타르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운버구의 <지경문>을 알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범망경보살계 1-5** 보살계 신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무애법(無礙法)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권 6,000원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르스님의 육상법문 테이프  
육상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르스님의 책모음

법포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 동심유림 전화 : (02) 587-6612·582-6612 팩스 : (02) 586-9078